차별없는 먹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

열린부뚜막협동조합

열린부뚜막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19, 103호(지족동, 성훈프라자)

문의전화 010-6292-4339

2017-12 (예비)사회적기업

열린부뚜막은

로컬푸드 건강도시락

로컬푸드 건강밥상배달

열린 마을공동부엌 사업

맛있게,

착하게,

건강하게,

열린부뚜막협동조합

열린부뚜막

서비스 메뉴

패션에만 T.P.O(time, place, occasion)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터링(도시락)에도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음식을
로컬푸드로 건강하게 만들어 서비스합니다.

중식 케이터링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식사 케이터링 서비스입니다.

다과 케이터링 서비스

행사, 파티, 모임 등 언제 어디서든 분위기에 맞는 멋진 케이터링을 서비스합니다.

도시락 서비스

정갈한 모양과 맛으로 실외에서도 깔끔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어르신 도시락

독거어르신,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행복 도시락'입니다.

대외활동

열린부뚜막협동조합은 사회에 기여될 수 있는 일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역사회 마을공동체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열린 마을 공동부엌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 열린 먹거리 강좌, 커뮤니티키친 등 다양한 마을활동을 펼쳐갑니다.

열린부뚜막 창업과정

같은 마음 한 뜻으로 모인 사람들

열린부뚜막의 자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열심히 일한다.'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모토가 2016년 7월 우리의 시작에 출발점을 주었고, 현재는 원동력이며 자랑입니다.
로컬푸드 가공개발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만난 우리는
도시락 및 케이터링에 필요한 전문화된 레시피, 식단연구, 가공식품개발, 제철밥상, 로컬푸드 농산물
등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원가계산 등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배우며 꿈을 키웠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발휘해주어
좀 더 쉽게 전문성을 띄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 10년 운영, 베이커리 10년 운영, 사회복지사 10년 근무, 복지관 단체급식 10년 자원봉사 등
제각각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우리의 성과로 빛을 발해 주었습니다.

처음 열린부뚜막이 맡은 일은 품앗이마을 중식 케이터링이었습니다.
품앗이마을 근무 시절부터 직원들에게 취미처럼 남은 로컬푸드 식재료로 요리해주었던 것이 일로 이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좋은 일이였습니다.
시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점차 주변에서 알아봐주시고 찾아봐주시는 덕분에
이제는 1000인분 주문을 소화해내는 케이터링&도시락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음식과 요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이 만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힘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부뚜막이 나아갈 길

열린부뚜막은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처음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모였습니다. 차츰 우리는 모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바람대로 2017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었고 이후 건강도시락 사업에 선정되어
유성구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에는 대전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100분에게 주2회 반찬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며 느낀 것은 이것이 단기적인 일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상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두고 있지만,
도시락 배달을 받는 어르신들께서는 도시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와 정, 안부체크 등 부가적인 것이 크기에
도시락 배달이 끝나갈 때쯤이면 무척이나 속상해 하십니다.

작년 길었던 추석연휴 이후 열흘만에 사람을 만난다는
시작장애 어르신에 말씀에 눈을 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먹거리 차별 없는 사회, 사람의 정을 나누는 사회가 되기 위해 열린부뚜막협동조합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도시락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린부뚜막은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열린부뚜막협동조합이 걸어온 길

2016

7월11일 협동조합 설립

2017

8월 〈같이해요! 로컬푸드건강도시락〉 공모사업 선정,

10월23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연리지 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직원식사 무상제공
- 육지해녀협동조합 청년조합원 식사무상제공
- 만들레의료사협과 함께하는 주2회 취약계층 어르신도시락 조리, 배달참여
- 품앗이마을사회적협동조합 직원 중식 케이터링

2018

3월 만들레의료사협 노인건강돌봄 지원사업 영양개선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 대전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100분에게 주2회 반찬도시락 전달
- 마을공동체 행사 케이터링 및 맞춤형 로컬푸드건강 도시락 사업